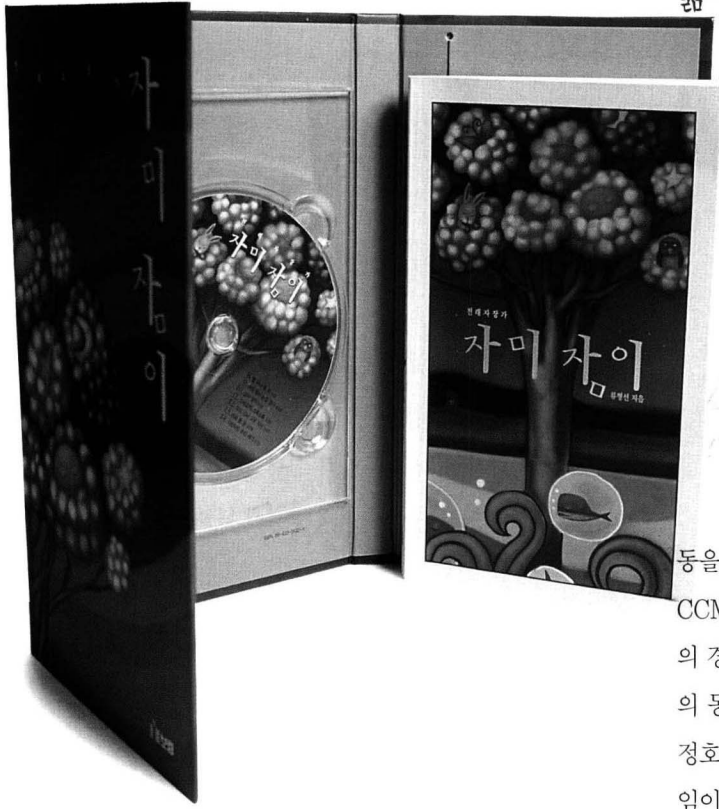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CD포함) 깊이 읽기

얇- 함- 씬, 그 편안한 삼박자

윤중강_음악평론가



등을 펼쳤다. 그리고 〈조율〉 콘서트를 이끌고 있다. 〈조율〉 역시 CCM활동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그는 그동안 양악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앞장서 왔다. 아울러 류형선은 '나팔꽃'의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팔꽃'은 1999년 봄, 시인 김용택 정호승 도중환 안도현 유중화와 작곡가들이 함께 만든 시 노래 모음이다. 《나팔꽃》 북시디에선 그를 가리켜 '나팔꽃 선수들 중 유일하게 작곡과를 나온 정통과(?)' 라고 했다. 그리고 '국악과 양악의 절묘한 조화는 일찍이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음악이며 그가 개발한 신중무기' 라고 선언한다.

한양대학교에서 서양음악을 공부한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문사(대학원 과정)에 들어가 '국악작곡'이란 분야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다. 서른여덟 나이에 국악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그는, 이른바 정통국악계에서도 한 사람의 작곡가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 그가 책을 냈다.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란 책이다. 그는 글도 많이 썼고, 다양한 음반의 프로듀서도 했었지만, 국악을 공부하면서 알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담아낸 결과물로서 이 북시디가 첫 작품이다.

나는 이 책에서 한 아버지의 모습을 읽는다. 그의 신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둔 그의 성실함과 근면함, 사랑과 봉사를 동서남북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채우려는 이 시대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한다. 〈감꽃〉을 작곡하고 불렀던 청년은 이제 어엿한 가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 처절한 시대의 남루한 자아를 뒤로 하고, 이념 뒤에 버텼

〈감꽃〉. 민중가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귀에 익은 노래일 것이다. '민족음악연구회' 음반에 실려 있다. 중모리 장단으로 되어 있고, 아쟁 반주로 다가왔던 이 노래를 한때 꽤 많이 듣고 불렀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지 궁금했다. 반듯한 청년의 목소리였다. 좋은 세상에 태어나 자랐으면 평범한 소시민으로 잘 살았을 성실은 느낌이였다. 그런 청년이 과거의 역사에 빚대어서 이 시대의 아픔을 노래하고 있었다. 담담함과 절절함이 적절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목소리였다.

류형선. 〈감꽃〉을 작곡하고 편곡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노래를 직접 부르기까지 했다. 한양대학교 작곡가 출신의 그는 참 많은 일을 했다. 그의 음악작업은 이른바 '제도권'에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노래운동권이나 문화운동권에서 그의 존재는 누구보다도 컸다. 노래모임 '새 하늘 새 땅'의 음악감독인 그는 기독교 음악(이하 CCM)의 대중화 혹은 한국화를 염두에 두고 음악활

이 글을 쓴 윤중강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국립동경예술대학교를 졸업했다.
제1회 객석 예술평론상을 수상했으며
《우리국악 백년》(현암사), 《국악이 내게
로 왔다》(국악이 바뀌고 있다) 《국악을
방송에 담다》(민속원) 《가야금은 계속된
다》(새롬) 등의 책을 펴냈다.
현재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로 있으며 국악FM방송에서
〈이 땅의 오늘음악, 윤중강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다.

던 순수를 삶과 노래의 전면에서 내세우고 있다.

잠시 내 얘기를 해도 좋을까? 나는 '일인가족'이다. 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혈연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자장가를 들려줄 피붙이는 없는 셈이다. 그런 나이지만 이 책에서 나는 내가 자장가를 듣고 부른다는 유사경험을 한다. 책에 온도가 있다면 이 책의 온도는 더도 덜도 말고 사람의 체온인 36.5도다.

책을 좀더 깊게 살펴보자. 이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1. 아기의 귀에 무슨 소리를 들려줄까? 2.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노래, 전래자장가 3. 전래자장가에 숨어 있는 비밀 4. 전래자장가의 이모저모 5. 마치면서/전래자장가는 미완성입니다. 모두 연결해 읽어도 좋지만 또한 어떤 한 부분만을 떼어놓아도 읽기에 무리가 없다.

그는 이렇게 글을 전개하면서, 전래자장가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짚어주고 있고, 그리고 후반부로 가서 자신이 만든 노래들에 대한 작곡가적인 해설과 더불어 평론가적인 해석까지 덧붙이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난 그가 '이야기꾼'임을 확인한다. 보통 이야기꾼하면 적당한 '뽕'이 있어야 함을 암묵적으로 용인한다. 재밌으니 알고도 속고 모르기도 속는다. 그렇지만 류형선은 이야

기꾼임에도 불구하고 전래자장가를 다룬 이 책에 진실만을 채워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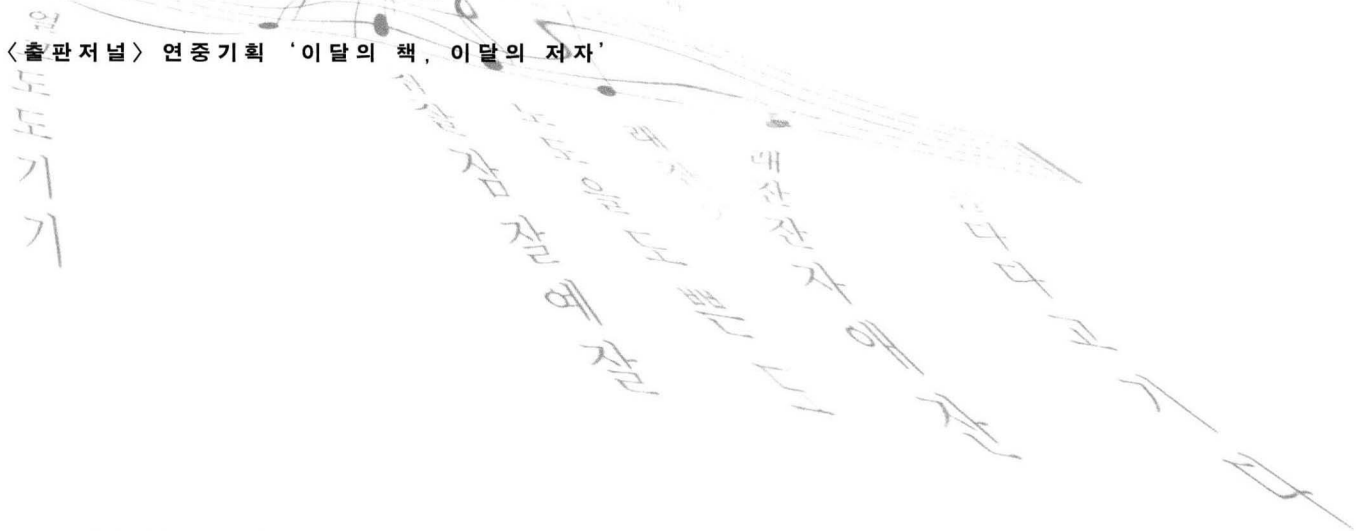
그는 노래를 '일상용품'으로 보고 있다. 노래의 미덕은 일상의 정서를 잘 표현하는 데 있다고 했다. 그의 글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부담이 없다. 말 혹은 강의를 그대로 책으로 옮긴 것인데, 우리 국악분야에서 이런 식의 글쓰기는 백대웅의 《인간과 음악》에서 시도됐다. 그 책도 어려운 음악을 쉽게 풀어 놓고 있는데, 류형선의 책도 마찬가지다. 두 책은 또다른 공통점도 갖고 있다.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두 책 모두 딸과의 즐거운 경험,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글로 풀어냈다. 류형선은 자장가를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도 적당히 슬쩍 잘 집어넣는다. 그리고 결국은 딸 자랑도 하는데, 그게 팔불출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가 탁월한 이야기꾼이라는 의미다.

노래와 놀이는 같은 어원이라고 한다. 이 책의 제목은 《전래자장가 자미 잠이》이다. 이 책을 보면 '재미'와 '잠'도 같은 어원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다가 그 즐거운 편안함에 취해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장가책이자, 음악책이자, 수필집이다. 이 책은 자장가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자장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거기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니다. 자장가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 음악과 삶을 얘기하고 있고, 자장가를 통해 국악 특유의 음악적 특징을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내 머리 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에듀테인먼트인데, 이 책은 '자장가'를 매개로 해서 교육적 의미와 놀이적 재미를 공존시키고 있다.

아이들은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 노래를 좋아한다. 글을 쓴 류형선도 군데군데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를 잘 배치해 놓는다. 그렇다. 전래자장가가 그렇듯이 그의 글도 첩어疊語의 묘미가 살아 있다. 그는 예쁜 우리말을 가져와서 그걸 운율감 있게 배치해 놓고 있다. 그래서 그의 책을 읽으면서, 나는 시를 읽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의 책은 눈으로 보서는 안 되며, 소리내서 시집처럼 읽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다.

그가 지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마 그동안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었던 국악이 바로 자신의 곁에서 쉼쉼근 잠자고 있다는 존재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책의 글귀들을 꼼꼼하게 읽은 독자라면 곧 의성어 의태어 혹은 첩어 구사능력이 향상되리라는 생각도 든다. 이 책은 또박또박 읽을 때 가장 좋다. 하지만 이야기의 진행 순서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소재목에 끌려서 띄엄띄엄 읽는 것도 좋고, 또한 휴식하는 마음으로 군데군데



를 설렁설렁 읽어도 얻을 게 많은 책이다.

전래자장가를 다루는 이 책에서 류형선은 '전래자장가'는 좋은 것이라고 외치지 않는다. 그리고 '전래자장가' 만을 다룬 것도 아니다. 텔레비전 드라마가 살짝 등장하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아는 여러 노래들을 슬쩍 집어넣으면서 국악이라는 낯선 문화를 친숙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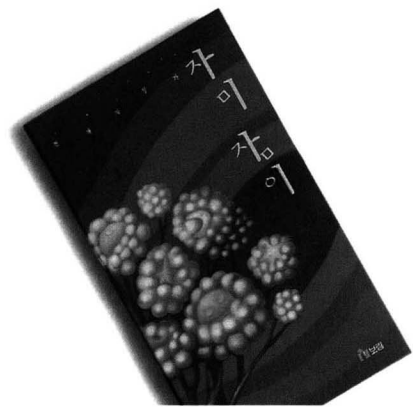
그리고 책 뒤에는 우리 악기에 관한 설명도 곁들여져 있다. 전래자장가의 원본原本이 되는 곡도 있다. 방송국에서 십 년 동안에 걸쳐서 녹음한 자료들이다. 이 땅의 어르신들이 부르는 자장가가 있지만 그걸 직접 감상하거나 아이들에게 활용하기는 좀 거리감이 있다. 모르는 말과 정리된 곡조가 필요했다. 자장가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 또한 노랫말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말을 거르고, 요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걸러내는 '필터링'이 필요했다. 그의 이런 작업은 과거의 자장가라는 '자연수'를 정수기에 걸러내 건강에 좋은 '육각수'로 만드는 작업인지도 모른다.

이 책은 북시이다. 책과 함께 전래자장가의 노랫말과 곡조를 다듬은 CD가 실려 있다. 그동안 민중가요, CCM, 퓨전국악을 프로듀스했던 류형선의 노하우와 역량은 여기서도 발휘된다.

그는 대학에서 순수음악을 전공했지만, 그의 음악적인 못자리는 역시 포크음악이다. 그의 음악을 들으면 김민기, 서유석에서 시작된 포크음악이 이제 밥 딜런을 뒤로 하고 완전한 한국적인 포크음악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게 된다.

그는 그의 주변에서 음악작업을 함께 했던 이들에게 어쩌면 그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모성母性을 부여한다. 어머니의 성향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래전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자장가를 노래한 적이 있다. 그 노래를 듣고 내 주변의 한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지만, 그는 '젓이 나오지 않는 사람' 같다고 했다. 그와 반대로 류형선의 책과 노래에는 모유母乳를 먹이는 사람의 너그러움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 자장가를 다룬 음악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북시대에 실린 곡처럼 많은 자장가를 편곡한 것은 일찍이 없었다. 전래가요 〈타박네야〉를 민중가요에서 자장가로 만들어내는 품새가 남다르고, 전래자장가와 정악을 타령 선율로 어우러지게 하는 솜씨도 남다르다. 그리고 해금연주가 강은일이 부르는 제주도 자장가



《전래자장가 자미잠이》(CD포함) 류형선 지음 | 보림 | 200쪽 | 값 18,000원

에서는 국악 아티스트의 또 다른 면도 발견된다.

그의 편곡과 이 음반의 노래를 듣다보면 이 세상의 모든 노래가 다 자장가라는 생각에 미칠 듯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노래를 좀더 깨끗하게 만들고 좀더 소박하게 만들면, 그게 바로 자장가가 된다는 생각에까지 미쳤다. 마치 어른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존재가 아이란 생각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래자장가 자미잠이》란 책을 통해 앓과 함과 씬을 모두 경험한다. 전래자장가를 매개로 한국음악이나 음악의 존재성을 알게 된다. 그리고 저자가 아버지로서, 작곡가로서, 또 한 사람의 소시민으로 갖게 되는 의식과 실천을 그대로 따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우리는 뻑뻑하지 않은 내용과 편집, 그리고 거기에 존재하는 많은 노래들과 함께 휴식 같은 편안함을 경험하게 된다. 《전래자장가 자미잠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앓(지식) - 함(실천) - 씬(휴식)의 삼박자가 좋은 조화를 이루는 책이다. **한겨레**

